

임실군, 지하수 오염 막는다

방치공 폐광 사업비 1억원 편성... 현 10여공 찾아 원상복구

임실군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하는 등 '정정임실 지키기'에 나섰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표 오염원이 유입되는 이동통로로 단기간에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어 발 빠른 폐공처리가 필요하다. 군은 21일 깨끗한 지하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 및 관리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 폐공 조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치공은 원래 닫혀있던 공간을 농업용이나 생활용 관정으로 개발해 사

용하다 사용이 중단된 관정이다. 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공처리하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경우 관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연결돼 있어 지하대수층을 단박에 오염시킬 수 있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몇십년, 몇백년이 지나도 토양의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군은 방치공 폐공사업비로 1억원 편성해, 현재 10여공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폐공작업을 위해서는 주민들

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로, 대부분이 미등록된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의 정보제공 없이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역주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공 폐공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정정임실 지켜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임실군청 기반조성팀(☎640-2561)에 신고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맞춤형 정책 발굴 청년 토론회 연다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순창군이 청년들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위해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창청년토론회는 청년 문제 해결책을 청년 스스로가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1일 '청년의 꿈이 순창의 미래'라는 주제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3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그들의 현실과 꿈과 미래를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세부내용은 청년이 순창에 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요인, 순창이 바뀌어야 할 부분, 청년들의 눈으로 본 성공과 사회편견 깨기, 새로운 청년문화 등이다. 군은 청년농부, 귀농인, 청년CEO, 문화예술인, 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토론참석 청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만19세에서 만 39세 이하 관내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 청년들은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공고란에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순창군청 행정계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ky198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록 행정과장은 "이번 순창청년토론회는 지역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수님의 특별 지시로 시행 된다"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엔 열린 청년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순창군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등 에 반영할 계획이 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방향 특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방안과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방향, 국내·외 시장흐름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다. 2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은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농협, 수출 및 유통업체, 농업행정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수출진흥과장을 초빙해 진행됐

으며 대내·외 농특산물의 마케팅 트렌드 변화와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 방향, 전략적 농식품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해 열린 강의를 펼쳤다. 또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고창군의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의 대책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기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그동안

생산에만 전념하면서 농산물 마케팅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생산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와 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두고 돈 버는 영농을 해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규모화, 조직화를 더욱 철저히 하고 고창군만의 특성화된 마케팅 전략을 연구 수립해 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봄철 조림사업 착수

14억 3000만원 투입... 편백나무 심기 등 대기정화 나서

산림자원의 가치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임실군이 14억3천만원을 투입해 '2017년도 봄철 조림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283ha 임야에 최근 인기가 높은 편백나무 외 8종 70만본을 식재하고 대기정화, 수원함양 등 공익적 가치 추구하고 국민복지지원 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피톤치드 효과가 높은 편백나무 135ha와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밀원수와 가꾸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백향나무 48ha 등을 비롯해 낙엽송, 상수리, 화백 등을 식재한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림소득 작목으로 발굴해 조성한 76ha의 숲나무 단지를 확대 조성한다. 군은 숲나무단지를 6차산업의 선두 사업으로 육성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귀촌인 양 등 공익적 가치 추구하고 국민복지지원 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1억5천만원을 투입해 265ha 임야에 편백나무를 비롯해 6종, 60만 그루를 심어 산림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신축공사 착공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화장품 연구개발·기업지원 복합시설인 '글로벌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이하 '컨버전스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이는 남원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화장품기업 입주단지 조성과 우수 화장품생산시설 구축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컨버전스센터는 국비 35억 원을 포함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면적 3,086㎡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소재 개발실, 제품개발실, 시험분석실, 기업

입주실, 전시홍보실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각종 분석장비, 개발장비 등을 갖추고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연구·개발인력이 투입되어 지리산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와 고품질·고부가가치형 화장품과 이너뷰티식품을 개발하게 되며, 중소화장품기업뿐만 아니라 이너뷰티식품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분석, 품질관리 등의 안전성 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보육과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아산면~선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고창군 주요 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의 진입도로인 아산면~선운산간 노선의 중앙분리대에 특색 있는 도로 화단이 조성돼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2015년 2억 원, 지난해 2억 원에 이어 올해 5000만원을 투입해 총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고 21일 전했다. 중앙분리대 화단이 조성되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도로환경은 물론, 흥가시와 황금사철 등 구간마다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경찰,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생활 반칙 근절을 위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5월 17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서민생활 주변에서 주민불안 야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창경찰에서는 순창장남을 기하여 생활주변 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등 지역주민 상대로 다각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고방법·처리절차 등을 홍보했다. 신일섭 순창서장은 "내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활주변에서 생계를 침해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폭행·협박 등 갈취행위를 근절하여 서민 생활 안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 3대 반칙 행위 근절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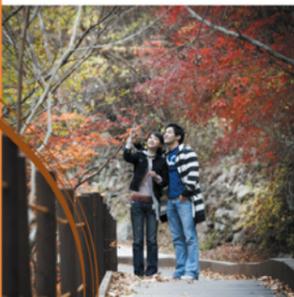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운봉파출소는 최근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3대 반칙 행위 근절 관련 추진 내용을 조 후역 파출소장은 직원들과 함께 경로당 및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반칙 행위 근절'이란 △생활 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양계운전) △사이버 반칙(인터넷머뭇, 보이스포싱·스미싱 등)으로 경찰은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분야불편,불만을 일으키는 3대 교통반칙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지를 배부하면서 홍보 활동과 러시아워를 통해 교차로 꼬리물기·꺼이 들기 등 양계운전 단속 및 교통소통 활동을 병행하는 가시적인 전방위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여권업무 연장근무제 호응

임실군은 지역민 편의제공을 위해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규정으로 정상 근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지방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해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여권발급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별 수수료가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640-225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